

임실군 고부가 식품 개발 청신호

웃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 참여기관 워크숍 열어... 신산업 육성 집중

임실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웃재배단지 조성을 발판삼아 고부가 식품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의 특화자원인 웃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웃 산업 전반에 대한 차별화전략과 비전을 마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2018년도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웃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은 2021년까지 66억 원이 투입되며, 웃 공공이용시설 구축과 웃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소재개발,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이 추진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웃 산업 전반에 대해 임실군과 순창군, 사업단, 참여기관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여, 머리를 맞대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해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사업추진 계획과 웃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성과 보고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2018년도 세부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순창장류연구소에서 웃을 활용한 고품질 장류 상품개발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정립 및 기능성 분석 성



임실군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의 특화자원인 웃 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웃 소재 개발에 따른 기초자료 분석 및 발효 추출공정 표준화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둘째 날에는 올해 추진될 웃 공동이용 시설 구축과 관련한 시설배치 및 설비에 대한 논의 및 향후 활용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가시적 도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웃철 문화원을 찾아 웃산업육성과 관련한 현장방문 등이 이어졌다.

군은 웃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을 통해 웃 재배단지 귀농귀촌인과 지역 내 농업일지리를 창출함은 물론 육종 호 주변에 위치할 공동이용시설인 가공체험관 및 전문 판매장을 통해 체

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웃 관련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전국최대 규모의 웃재배단지로서 명성을 발판삼아 건강기능성 고부가 식품개발의 메카로서 임실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3년도부터 신덕면 금정리 일원을 중심으로 107ha의 웃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2023년까지 신덕면과 운암면 일원까지 확대하여 4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서 인천공항 한번에 가요”

직통 리무진버스 내달 12일 운행... 요금 2만9500원 결정

남원과 인천국제공항 간 시외(직통) 리무진 버스 노선 운행이 2월 12일 예정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그간 남원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버스 운송조합, 운수업체 등을 방문하고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남원과 인천공항을 잇는 직통 노선을 인가받았다.

이후 남원시와 전북도, 4개 운수업

체가(전북, 호남, 금호, 경기) 협의하여 운행시간과 요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왔고, 마침내 2월 12일 인천공항 직통 리무진버스가 운행을 하게 될 예정이다.

남원과 인천공항을 하루에 4번 왕복하는 리무진버스의 운행요금은 2만 9,5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운행시간은 현재 협의 마무리단계로 설 명절이 돌아오는 2월 12일 전 공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설돼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행복한 노후 위한 효심행정 눈길

심민 임실군수, 새해 경로당 투어 호응 속 마무리

심 민 임실군수가 새해 지역 곳곳의 어르신들을 만나 효심행정을 마무리했다.

심 군수는 지난달 16일 임실을 주중 경로당 등 4개소를 시작으로, 2일 덕치면까지 12개 읍면 6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는 2018년 새해 효심투어를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마쳤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진행된 이번 효심투어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심 군수가 직접 관내 취약 경로당을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심 군수는 읍면별 경로당을 방문해 폭설과 한파에 따른 동절기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실군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효심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로당 체조교실

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동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체조교실은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노인들의 운동을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무려 4,284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이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에 경로당을 돌면서 전해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개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지속가능발전협정 정기총회

임실군과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진두 부군수를 비롯해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 및 전북도 협의회 임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규 회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로패 전달과 지난해 성과분석과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회째를 맞은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는 지난 2016년부터 협의회와 중점추진 사업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박진두 부군수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의회가 군민과 행정의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정책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 오세요”

무술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인월면(면장 진명현)에서는 인월지리농민회와 함께 오는 3월 2일 17시 인월면 남천둔치 행사장에서 제19회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인월면은 고려 우왕6년(1380년) 삼도 도원수 이성계 장군이 그믐 날 기도를 통해 보름달을 끌어 올려(弓月) 막아낸 황산대첩 전승지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곳으로 달맞이 축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올해는 행사 장소를 남천 둔치로 변경하여 더 알찬 행사를 준비한다.

포크레인 크레인 등 장비와 방방대원 40여명이 협조하여 국내최대 규모의 달집을 완성하였고, 행사당일에는 터울림,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만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화상실 휴지통 철거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군청사 내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통을 철거하고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한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화장실 휴지통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화장지도 물에 잘 녹는 제품으로 비치하는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화장실 칸막이마다 홍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혼선을 최소화 하는데 힘썼다.

군 관계자는 법령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순창형 군민건강증진 교육 대폭 확대

5회 150명 대상 → 15회 600명 늘고 프로그램 신설

순창군이 지역사회 실정에 딱 맞는 맞춤형 군민 건강증진 교육을 추진해 군민들의 건강을 세세히 챙겨나감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5회 15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맞춤형 군민건강증진 교육을 올해 15회 6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은 기존에 건강증진 교육 외에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쿡킹 클래스와 경로당 급식도우미 건강캠프를 새롭게 추가해 교육의 다양성을 대폭 높였다.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은 군민들의 건강과 노후대비를 책임지기 위해 1박 2일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바른식생활에 대한 이해로 몸과 마음의

기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내최고 강사진의 건강강의, 영양관리 강의, 식단실습, 개별 운동처방 등이 진행된다. 농촌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교육생들로부터 90%이상 만족도를 보이며 민성질환 없는 순창만들기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쿡킹클래스와 경로당 급식도우미 건강캠프 교육이 추가됐다. 쿡킹클래스는 30명을 정원으로 주 2시간씩 12회로 진행되며 홈페이지 웹캠 간식만들기, 제철음식을 활용한 반찬만들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리에 관심은 많으나 배울 기회가 없었던 순창군 남성들에게 요리 교육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노년기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려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건강캠프는 실무교육은 교령화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제도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회춘하는 식단 교육, 위생·영양교육, 건강교육, 저염 요리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전문성을 키워 어르신들이 건강도 챙기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은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지역의 교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은 군민들의 현재 생활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만큼 군민들이 건강하게 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 전화 063-660-152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원영 기자



순창의 겨울은 아름답습니다.